

엄마 찾아 모국 온 입양아 잇단 가족 상봉

미국 입양 30대, 북부서 도움으로 합평 거주 가족 만나 독일서 온 30대 남부서 노력으로 35년만에 엄마 찾아

“어릴 때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세요.” 부모를 찾아 수십년 만에 고국땅을 밟은 해외 입양아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잇따라 가족과 상봉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1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께 한 30대 남성이 역전지구대 문을 두드렸다. 한국말이 조금 어눌한 고모(37)씨는 자신을 미국에서 왔다고 소개한 뒤 경찰들에게 “부모를 찾고 싶다”고 요청했다. 합평에서 태어난 고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2살 때인 지난 1993년 미국 보스턴으로 입양됐다. 최근 미국생활을 정리한 고씨는 부모를 찾기 위해 귀국길에 올랐고,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고씨는 25년 만에 고국으로 왔지만,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했다. 비행기 기내에서

지갑도 잃어 버렸다. 고씨는 어릴적 기억에 따라 남은 돈을 모아 무작정 광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탔다. 해가 저문 늦은 오후 광주에 도착한 그는 밤도 굶은 채 광주역 대합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광주역 주변을 배회하다 역전지구대를 발견해 도움을 청한 것이다. 역전지구대 직원들은 고씨가 기억하는 어머니 이름과 어릴적 살았던 합평 마을을 토대로 탐문에 들어갔지만 어머니의 나이를 몰라 여의치 않았다. 다행히 고씨는 외삼촌(47)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한달음에 달려온 외삼촌은 “고씨 모친과 합평에 살고 있다”며 고씨와 함께 합평으로 향했다. 고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지구대



미국서 온 고모(37·오른쪽)씨가 25년 만에 외삼촌과 재회하고 있다.

원들에게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독일 교포 남성이 35년 만에 광주에서 경찰의 도움으로 친모와 극적으로 만났다. 독일 교포 남성 A(35)씨는 지난달 31일 외국인 노부모와 함께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광주 남부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A씨는 지역 사회복지법인 원장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을 경찰에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983년 3월 당시 18살이었던 A씨의 어머니 B씨는 미혼모 신분으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A씨를 낳았다. B씨는 A씨를 기을 자신이 없어 미혼모 지원 시설의 설득과 권유로 해외 입양을 선택하게 됐다. 30대 청년이 된 A씨는 친모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양부모와 함께 광주를 찾게 된 것이다. 사연을 들은 남부서 실종전담팀은 A씨가 태어난 병원 자료와 입양카드, 경찰 정보망의 신원조회 등을 통해 친모인 B씨를 찾아냈다. 현재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B씨는 처음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출국을 하루 앞둔 A씨와 눈물의 상봉을 했다. 경찰서에서 35년 만에 아들과 만난 B씨는 “미안하다”며 오열했고, A씨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줬다. 남부서 관계자는 “찾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두 사람이 만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983년 3월 당시 18살이었던 A씨의 어머니 B씨는 미혼모 신분으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A씨를 낳았다. B씨는 A씨를 기을 자신이 없어 미혼모 지원 시설의 설득과 권유로 해외 입양을 선택하게 됐다. 30대 청년이 된 A씨는 친모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양부모와 함께 광주를 찾게 된 것이다. 사연을 들은 남부서 실종전담팀은 A씨가 태어난 병원 자료와 입양카드, 경찰 정보망의 신원조회 등을 통해 친모인 B씨를 찾아냈다. 현재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B씨는 처음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출국을 하루 앞둔 A씨와 눈물의 상봉을 했다. 경찰서에서 35년 만에 아들과 만난 B씨는 “미안하다”며 오열했고, A씨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줬다. 남부서 관계자는 “찾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두 사람이 만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4 달뜨기 11:01
해질 17:29 달지기 21:12

출근길 안개 조심

대체로 맑고 곳곳에 안개가 끼겠다.

광주	맑음	9/15	보성	맑음	7/15
목포	맑음	9/14	순천	맑음	11/17
여수	맑음	12/16	영광	맑음	6/13
나주	맑음	6/15	진도	맑음	9/14
완도	맑음	10/15	전주	맑음	7/14
구례	맑음	8/16	군산	맑음	6/14
강진	맑음	9/15	남원	맑음	5/15
해남	맑음	7/14	흑산도	맑음	11/14
장성	맑음	6/1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면바다(서)	북~북동	1.0~2.5	북서~북	1.0~2.0

◇ 생활지수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46	22:30	04:33	17:19
여수	05:00	17:53	11:45	23:36

◇ 주간 날씨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	☀	☀	☀	☀	☀	☀
4/16	4/15	5/16	5/16	6/15	6/14	5/14

오늘 한차례 비 온 후 맑은 날씨...미세먼지 '보통'

이번 주 광주·전남은 한차례 비가 내린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온도 평년과 비슷한 수준(아침 최저기온 0~8도, 낮 최고 기온 13~16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 광주·전남은 중국 북동지방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다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광주·전남은 낮 최고기온이 18~24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 수준으로 전남 남해안 등 일부 지역은 최대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13일부터는 고기압

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감기 등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광주·전남 미세먼지 예보를 '보통' 단계로 전망했지만 국내 대기정체와 밤사이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의 농도가 전해져 광주·전남 등 호남권 지역에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백양사 오색단풍 절정 11일 오전 장성 백양사 단풍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응급실 폭행 무조건 구속수사... 처벌 강화

복지부·경찰청 방지대책

형량하한제 도입도 추진

앞으로 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전남에서도 응급실내 폭행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만취한 A(58)씨가 목포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으로 의사(45) 얼굴을 때리고 간호사(25) 가슴과 목 부위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9일에는 새벽 1시께 여수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A(59)씨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국은 가장 먼저 이 같은 응급실 폭행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

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거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영어 시험문제 유출 목표 문태고 문학 시험문제는 '참고서 그대로'

전남교육청 특별감사 확인

중간고사 영어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한 목포 문태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참고서나 기출 문제를 베껴 시험문제를 출제해왔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5~7일 문태고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 특정 과목에서 참고서와 전년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7~2018학년도 학교 시험문제를 살폈는데, 최소 10과목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기출문제, 참고서와 일치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2학년 문학 시험에서는 1학기 중간고사 25문제, 기말고사 23문제가 참고서에서 그대로 출제됐다. 2학기 중간고사 화법과 작문 시험에서는 19문제를 참고서와 이전 시험 기출문제에서 가져와 출제했다. 다른 과목에서도 참고서나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출제되기도 했지만 한 번에 집중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았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학부모 의혹제기에 따라 교원 자녀 4명이 특정 시기, 특정 과목에서 시험 성적이 갑자기 향상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2017~2018학년도 내신, 모의고사 시험 성적 추이 분석 결과 의심할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도교육청은 결론 내렸다. 도교육청은 시험문제를 베낀 교사들에 대해서는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용찬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교육청 감사 결과 이번 중간고사 외 추가로 시험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5일 치러진 2학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문제가 일부 학생들에게 사전에 유출돼 제시됨, 경찰 수사, 교육청 감사 등 파문이 이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경찰청 수사(15일) 이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관심과 쟁점은 시험문제 유출에 교사 등 학교 관계자가 개입됐는지 여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영광 한빛원전 3호기

격납건물 정비 중 불꽃
현장 작업자가 자체 진화

정비 중인 한빛원전 3호기에서 화재가 발생, 원전사업자측이 자체 진화했다. 11일 오전 9시45분께 영광 한빛원전 3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정비 작업 중 전기 콘센트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한빛원전에 따르면 불꽃은 격납건물 정비를 위해 드릴 작업을 하던 중 드릴과 연결된 콘센트에서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작업자가 곧바로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했다. 한빛 3호기는 지난 5월 11일부터 계획에 방정비를 위해 가동이 멈춰 있다. 원전 측은 한빛 4호기 격납건물의 방사능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철관(CLP)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구멍)이 발견되자 3호기 격납건물에 대해서도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119에 신고를 했다”며 “정비 때문에 발전소가 멈춰 있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